

역사적 관점이 결부된 장소성 연구의 필요성

‘타자’의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The Need for Placeness Studies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Attempts to Provide ‘The Other’ with Historicity

고일홍**

본고는 역사적 관점이 가미된 장소성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특히 시간간의 확대를 통한 장소자산의 역사성 추적, 그리고 장소 속 타자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제주도 대정을 배경으로 진행된 ‘교육 이주’ 현상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장소자본의 역사성을 추적해야 하는 필요성과 특정 장소 속에서의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역사성을 가미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대외 교류나 이방인의 이주 및 정착의 사건들을 선사시대부터 조망함으로써 이곳이 지니는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장소적 특징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역사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추가할 경우, 장소성 연구의 심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성의 발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처럼 역사성이 가미된 ‘장소성’을 오늘날의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인식하기보다는 미래의 비전 구상 및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장소성, 장소자산, 역사성, 타자, 이방인, 제주도(대정), 울산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 S1A6A3A02065553).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mahari95@snu.ac.kr).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장소성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경제적 효과 도모를 위한 지역 개발 전략을 구상하게 되면서 등장하였다(홍성희 외, 2011: 15). 이후 서양 학계의 장소성에 대한 논의들이(예를 들어, Relph, 1976; Steele, 1981; Tuan, 1977) 국내에서 활발히 소비되었고, 국내 연구자들도 장소성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제시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이일형, 1994; 이석환·황기원, 1997; 백선희, 2004).¹⁾

연구자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소성의 형성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개입하고 있음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성희 외(2011: 20)는 장소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장소성은 공간, 시간, 경험, 의미의 형성 요소를 지니며, (3차원인) 공간 및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행태에 대한 (4차원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적 경험을 통해 (5차원인) 의미가 생성 축적된 장소가 지닌 경험적 의미적 특성이다.” 여기에서 ‘시간’이 장소성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 이유는 ‘오랜 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활동과 그것의 결과인 유사시설의 밀집,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구성원 간 장소에 대한 의미공유 속에서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지영·조경진, 2022: 36).

이렇듯 장소성 연구에서는 오랜 시간을 조망하는 관점, 즉 ‘역사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양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장소의 ‘수직적’ 특징과 장소의 ‘수평적’ 특징²⁾ 이외에, 제3의 요소인 ‘역사적 특징’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장소의

1) ‘장소성’이라는 용어가 공간 및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홍성희 외, 2011: 18).

2) 일부 지리학자들은 ‘수직적’ 특징, ‘수평적’ 특징과 같은 개념을 고안하여 장소성을 설명하기

수직적·수평적 특징들이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 및 가치, 경제조직, 기술 등의 역사적 전개 과정 역시 장소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CIDNPBDM *et al.*, 2002: 56).

국내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최지영·조경진, 2022)나 문학·역사학·인류학 분야에서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한정훈, 2017)에서는 그나마 장소성의 역사적 특징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간·환경 분야의 일반적인 장소성 관련 연구에서는 다루어지는 시간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과학문 간 교류의 단절이라는 한국 학문 생태계의 고질적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단 공간·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다른 분야들 역시 역사적 시야의 편협함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장소성 연구에서 이처럼 역사적 깊이가 부족하고, 나아가 ‘깊은 역사’³⁾에 대

도 한다(NRC, 1997; Hanson, 1999). 장소의 ‘수직적’ 특징은 특정 영역 내에서 확인되는 사람 간, 그리고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현상들이 층층이 쌓인 양상을 의미한다. 반대로 장소의 ‘수평적’ 특징은 사람, 사물, 자본, 정보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장소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CIDNPBDM *et al.*, 2002: 56).

- 3) ‘깊은 역사(deep history)’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개념으로, 역사학의 범위가 ‘깊은 시간(deep time)’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깊은 시간’이란, 원래는 지구가 형성된 이후부터의 시간(즉, 지질학적 시간)을 의미하지만, ‘깊은 역사’ 개념과 같이 언급될 때는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기 이전의 시간(구석기시대 이후부터의 시간)을 의미한다(Rodriguez, 2022: 161~162). 19세기 후반 지질학과 고고학의 성과로 인류의 역사가 더 이상 아덴 동산에서의 인간 창조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시간’의 수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사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시작을 ‘문명의 등장’부터 보는 시각이 20세기 초반에 성립되기도 했다. 한편, 20세기 중반부터 기존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긴 호흡으로 인류사의 전개를 조망하는 연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역사학에는 ‘얕은 역사’를 연구하는 전통이 성립되었고, 연구자의 전문성이 심화될수록 연구의 시공간적 단위는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협소한 연구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깊은 역사’ 개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깊은 역사’에 대한 고려가 ‘연구 시간 폭’뿐만 아니라 ‘연구 시각’의 확장도 동반하며, 자연스럽게 역사학, 고고학, 지리학,

한 고려가 부재하다 보니, 장소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체들의 역사성도 간과되곤 한다. 일례로 특정 장소에서의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를 보면 마치 그러한 이방인의 존재가 그 장소에서는 매우 새롭고 이질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그러나 반도라는 특성과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이 땅에는 늘 이방인이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의 이방인은 사실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했던 여러 이방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편, 장소의 깊은 역사를 고려하는 연구의 경우에도, 역사 형성의 주체는 로컬 집단으로만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린 매시가 말했듯이, 장소의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관계들은 해당 장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외부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Massey, 1995). 따라서 장소성의 역사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는 로컬 집단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요소를 가져온 이방인의 역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하면 특정 장소에서의 이방인 경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흔히 그 ‘타자’로서의 이방인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특정 장소의 역사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그 ‘역사 형성의 주체’로서의 ‘타자’/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장소’, ‘역사’, ‘타자’, 이 세 개의 개념들은 서로 단절된 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이 가미된 장소성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특히 시간관의 확대를 통한 장소자산의 역사성 추적, 그리고 장소 속 타자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왜 필요한지를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장소성’과 ‘타자’를 다룬 본 학술지의 최신 게재 논문을 예로 들어, 장소자산이 형성되는 오늘날의 현상을 역사

지질학, 생물학 등의 학제 간 연구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Shryock and Smail, 2011: 3~7). ‘깊은 역사’ 개념은 스메일(Smail, 2005; 2008)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슈레이오크(Shryock and Smail, 2011)와의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는 배한국(2011), 박리미(2020) 등이 ‘깊은 역사[혹은 ‘큰 역사’(big history)] 개념을 검토한 바 있다.

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 역사성이 가미된 장소성 연구, 특히 특정 장소 속에서의 타자에 대한 역사적 조망이 가지는 힘을 제시하기 위해, 울산지역을 배경으로 ‘타자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이곳의 국제적 장소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제주도 대정(大靜)에서의 이주와 교육: 과거와 현재

《공간과 사회》 제31권 4호(통권 78호)에 실린 논문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강다희·고민경, 2021)은 고고·역사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는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동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관계들의 실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의 ‘모빌리티’와 “이동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빌리티가 실천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장소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으로서의 ‘모빌리티 렌즈’(Adey 2009; Cresswell 2006; 이용균, 2015; 강다희·고민경, 2021: 55 재인용)가 향후 필자의 연구 분야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질적 장소감’, ‘일시적 장소감’, ‘통로적 장소감’ 역시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주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이주와 장소에 관한 최신 지리학 연구로부터 고고·역사학자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고고·역사학자들 역시 교육이주 모빌리티를 다룬 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즉, 교육이주 모빌리티의 현상이었던 제주도 대정(大靜)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야를 넓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조선 시대까지 확장한다면 또 다른 모습의 교육이주 현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거의 장소성을 현재의 장소성과 비교한다면 후자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된 대정읍은 조선시대의 대정현으로, 이곳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즉, 조선시대 제주도 유배인은 남제주군의 대정현과 정의현, 북제주군의 추자도와 우도, 그리고 제주목에 안치되었는데, 이중 대정현은 제주도의 대표 유배인 49명 중 34명의 1차 유배지였던 장소이다(양진건 2004: 112, 허대옥, 2004: 25 재인용). 이처럼 대정은 조선시대 이래로 바다를 건너온 타자의 이주 장소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의 유배는 사형 완화의 차원에서 이용된 형벌로, 유배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충격, 언제라도 처형될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절망·고독·빈궁 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고위 정객 유배인의 경우에는 당쟁의 추이에 따라 해배되어 재입궐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폐되지 않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배생활 중 현지 주민들을 가르쳐 교육자로서 여러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교육활동을 두고 흔히 ‘유인교육(流人教育)’이라고 일컫는다(양진건, 2021: 162).

대정현에서의 유인교육을 펼쳤던 대표적인 유배인으로 백산(白山) 이세번(李世蕃, 1482~1526),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 그리고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 등이 있다(허대옥, 2004: 34~58). 이세번은 조광조가 투옥된 이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1522년에 유배되었고, 7년 동안 대정현에서 지방 유생들을 가르치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흥미롭게도 이세번의 사망 이후 그의 부인 황씨와 두 아들은 아예 제주도에 정착하여 고부 이씨(古阜 李氏) 벽동공파의 제주 입도조가 되었다(허대옥, 2004: 34~35).

정온은 1614년 광해군의 동생인 영창대군의 살인사건 및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유배되었다. 대정현 동문 막은골이라는 곳에 위리안치된 그는 그곳에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독서 및 교육활동에 매진하였다. 정온은 특히 유배길에 많은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을 위해 대정현감이 대정 적소 내에 지어준 서실 두 칸에서 지방 유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고, 먼저 유배

를 왔던 유배인들과는 시문을 교류하고, 지방 사람들에게는 예를 가르쳤다(허대옥, 2004: 36~37).

김정희는 안동 김씨의 음모에 휘말려 1840년에 유배되었고, 제주도 대정현에서 9년 동안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는 지방 유생들에게 실학의 학풍을 전수하는 교육활동을 펼쳤고, 양반사대부가 아닌 이들, 즉 ‘위향인’들과 교류하였다. 김정희와 교류했던 이들의 노력으로 제주도에 ‘위향문학운동’이라는 일종의 뒷골목 문화활동이 뿌리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김정희의 제주도 유인교육의 유산은 그의 학통을 이어나가고 두 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했던 민규호(閔奎鎬)의 글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읽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채나는 아름다움은 서울풍이 있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⁴⁾(허대옥, 2004: 46~56).

본토부터 이주해 온 유배인들의 이와 같은 교육활동은 대정, 나아가 제주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유배지로 몰려온 지방 유생들은 유배인들의 해박한 학문적 지식과 공명한 성품을 전수받았고, 이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제주와 대정의 학문적·문화적 풍토가 향상되었다. 또한 조선 정부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주에서 유인교육은 과거 입격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 관직 진출을 위한 문과와 향촌사회 사족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한 생원진사시에 입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제주 유인교육의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양진건, 2021: 172~175).

유배인으로부터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이들은 과거 입격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을 것이다. 제주 내에서 유인교육의 혜택을 받아 과거에 입격한 이들로는 숙종대의 고만첨, 오정빈, 정창원, 인조대의 김진용, 고흥진 등이 있다. 이들

4)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者如市數月人文大開彬彬有京國風耽羅開荒自公始”(허대옥, 2004: 47~48).

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신명규, 김진구, 이익 등의 유배지가 비록 대정은 아니었지만, 대정에서의 유인교육 역시 문과와 생원진사시 입격을 위한 노력에 중요하게 기여했을 것이다. 한편, 과거 입격에 실패하였어도 유배인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재생하여 제주의 학문적 풍토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이들도 있다. 대정으로 찾아와 김정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한우는 여러 차례 대과에 응시하였으나 끝내 입격을 하지 못하자 결국 포기하고 제주로 돌아와 ‘남국산두(南國山斗)’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제주의 큰 스승이 되었다(양진건, 2021: 172~175).

유배인들은 제주 내 초등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서당은 삼국시대 이래 서민교육의 기초 기관으로 향교나 다른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준비 교육이 이루어진 곳이었으며 7, 8세로부터 15, 16세의 아동들이 주로 수학하였다. 제주에서는 서당이 흔히 유배나 그 외의 이유로 제주로 이주해 온 외부인들에 의해 운영되었다(정선영, 2007: 35). 제주 최초의 사학인 굴림서원(橘林書院)의 경우, 유배인 간옹(良翁) 이익(李瀾, 1579~1624) 밑에 수학한 김진용(金晉鎰)의 건의로 세워진 장수당(藏修堂)이 그 전신이었다.⁵⁾ 또한 유배인의 교육활동을 기리는 과정에서 세워진 서당도 있었다. 정온이 해배된 이후에도 대정에서 그가 교육 활동 펼쳤던 서실 자리는 여전히 기억되었는데, 약 200년 후 김정희가 대정으로 유배를 왔을 당시에도 그곳은 학문을 닦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후 제주 목사의 노력으로 그 장소에는 정온의 사당인 송죽사(松竹祠)가 세워졌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대정서당이 세워졌다.⁶⁾ 이처럼 후대인들의 노력으로 교육장소로서의 그곳의 장소자산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도 대정에는 일종의 ‘교육이주 모빌리티’

5) “오현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사이트,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611>(검색일: 2022년 5월 15일).

6) “송죽사 터”,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웹사이트,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toc/GC04600701>(검색일: 2022년 5월 15일).

가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의 교육이주 모빌리티의 성격과 조선시대 대정현 유배인들이 교육활동을 펼쳤던 장소들에서의 그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가르치기 위해 이주한 이들은 자의에 의해서 왔고, 배움을 받기 위해 이주한 이들은 대체로 제주 밖에서 왔다. 반면, 대정의 유배인들은 타의에 의해 왔고, 배움을 받기 위해 이주한 이들은 주로 제주 안에서 왔다.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대정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공통의 사실이고, 교육이주의 과정에서 발생한 실천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정에 그 흔적을 남겼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기고 있다.

아울러 제주가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오늘날에는 국제교육의 거점으로 선정된 이유에는 역사를 관통하는 그곳의 자연지리적 조건, 즉 섬이라는 사실이 작용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려 말 이래로 제주본토와 격리된 왕래가 쉽지 않은 곳으로, 중앙에서는 그곳을 지역 특산물 공급처나 가장 먼 유배지로만 여겼다. 그 결과 조선시대 제주의 사족은 스스로를 ‘주변화’시켰고, 향촌사회의 안녕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자발성이 매우 낮았다(김호, 2020a: 454). 이러한 주변성의 폐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주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시가 되겠다. 향교의 스승들은 교육보다는 토산물이나 가축의 축적에 열중했고, 교생들은 제주에 유람 온 이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제주인들은 학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관아의 군교나 서리 자리에나 만족하게 되었다(김호, 2020a: 470).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주인들은 유배인들이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를 그 어느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 많은 이들이 유인 교육의 기회를 찾아 대정으로 모여든 배경에는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한 제주의 ‘주변성’이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대정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설립된 이유에도 이 장소의 ‘주변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가 국제자유

도시 개발과 같은 국제적 역할을 부여받고 그곳에서 사람 및 금융의 이동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 장소의 주변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신혜란·권민지, 2020: 141). 결국 제주로의 교육이주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제주가 ‘주변적 장소로서의 공간적 배경’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교육이주 모빌리티의 현장’이라는 장소자산이 오늘날 제주도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시대부터 그러한 장소자산 형성의 역사가 있었던 셈이다.

한편, 제주도 대정이라는 장소로 이주해 온 ‘타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역사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제주영어도시에 거주하는 수도권 고소득 계층 학부모 및 자녀, 그리고 영어권 국가의 국제학교 교사 및 자녀의 장소성 형성 경험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의 경험이 대정의 역사와 대정에서 앞서 존재했던 타자들의 경험과 분리된 채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오늘날 대정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교육이주자들이 일시적 뿌리내림과 관계맺기를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한정적으로만 교류하고 있어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일시적 장소, 통로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강다희·고민경, 2021: 73~82). 그런데 이들의 타자적 경험을 오늘의 맥락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앞서 제주와 대정을 거쳐 갔던 수많은 타자들의 경험들과 비교해서 바라본다면 타자의 장소성 경험에 대한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조선시대 대정에 거주했던 타자 중 유배인의 경우, 해배의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인 만큼 역시 대정을 일시적, 통로적 장소로 여겼을지도 모른다.⁷⁾ 하

7) 다음의 인용구들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제주도 내 유배지’로, 그리고 ‘(교육)이주자’를 ‘유배인’으로 교체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①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 토착민이 아닌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주자들의 지역적·계층적·국가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제주영어교육도시라는 독특한 장소가 형성된 것이다”(강다희·고민경, 2021: 82); ② “교육이주자들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모빌리티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일시적이고 통로적인 장소성을 보여준다. 일시성은 일시적 뿌

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토착사회와 교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육 활동을 펼쳐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갔다. 한편, 대정 지역의 모습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로, 예로부터 북태평양을 향해 하는 선박은 이곳에 표착을 했다. 그런데 『일성록(日省錄)』에 포함된 문정기(問情記)를 보면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옷을 입고 표류해 온 이러한 타자들을 제주도 사람들은 환대했음을 알 수 있다(김호, 2020b: 101). 반면 제주영어교육 도시의 타자들은 물리적 구분,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연령대의 차이, 심지어 ‘수준의 차이’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그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강다희·고민경, 2021: 77~78). 그러나 대정을 거쳐 갔던 앞선 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날 대정에서 목격되고 있는 교육이주자와 현지민 간의 배타성은 ‘타자’의 유입으로 발생한 필연적 현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조선시대 유배인과 오늘날의 교육이주자 모두 현지민보다 우위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가졌다. 그러나 전자는 그러한 사회 자본을 이용하여 현지민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과 달리, 후자는 그 사회 자본을 현지인과 교류하지 않은 상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제주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나 교육을 위해 그곳에 거주하는 행위나 둘 다 우위의 사회 자본을 가진 집단에 의한 계급적 구분짓기의 실천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배경으로 목격되고 있는 현상들을 몰역사적 타자의 실천의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엘리트 타자’에 의한 계급적 구분짓기의 변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자본을 가진 ‘엘리트 타자’에 의한 계급적 구분짓기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들과 현지민 간의 배타성이 과거

리내림과 관계맺기의 실천으로 나타나며, 통로성은 교육이주자들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새로운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 장소이자 하나의 통로로 여김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적 감정으로 구현된다”(강다희·고민경, 2021: 73).

에도 당연히 존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목격되는 배타성이 대정, 나아가 제주에 착근(embedded)된 장소성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이주자들의 선택과 실천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또한 장소성 형성의 쌍방향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민의 이와 같은 선택과 실천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에 내포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로서의 정체성(이승욱 외, 2017)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전략(Ong, 2006; 박배균 외, 2017)이 제주에 무엇을 가져다주었으며 또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정리하면 장소성 연구에서 좀 더 폭넓은 시간관을 도입하여 장소자본의 역사성을 추적하고, 아울러 특정 장소 속에서의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역사성을 가미하면 연구결과의 함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런데 ‘역사적 관점’이라는 렌즈를 추가할 경우, 위의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소성 연구의 심화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장소성의 발견도 끌어낼 수 있다. 이렇듯 역사적 조망이 가지는 힘을 다음 장에서 울산지역을 사례로 보여주고자 한다.

3. 울산의 장소성: 공업도시에서 국제교류의 허브로

2019년 발표된 정부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동해안권 발전계획의 목표는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 구현’, ‘연대와 협력의 환동해권 형성’이고, 추진전략에는 ‘글로벌 신관광허브 구축’, ‘환동해권 소통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권영상·경보영, 2021: 15). 즉, 정부의 환동해 구상에서는 개별 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연결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안권의 최대도시인 울산은 2016년에 포항, 경주와 함께 ‘해오름’ 동맹이라는 도시연합을 결성하는 등 환동해 경제 벨트의 중심에 서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표 1> 2016.5~2022.5 기간 동안 SNS상에서 ‘환동해’ 키워드와 함께 ‘포항’ 및 ‘울산’이 연관되어 언급된 횟수 순위

기간	‘포항’ 언급 순위	‘울산’ 언급 순위
2016.5.20~2017.5.19	8	86
2017.5.20~2018.5.19	5	0
2018.5.20~2019.5.20	6	0
2019.5.20~2020.5.21	8	21
2020.5.20~2021.5.22	18	84
2021.5.20~2022.5.23	6	207

출처: 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를 대상으로 썬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관어’ 검색 기능(<https://some.co.kr/analysis/social/association>)을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

리나 이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해오름 동맹이 맺어진 2016년 이후의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동해’와의 연관어로 ‘포항’이 ‘울산’보다 꾸준히 훨씬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참고).

울산이 포항에 비해 환동해 담론에서 부각이 덜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워진 환동해 비전에 부합하는 장소자산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울산연구원에서는 환동해경제권과 관련된 울산의 발전전략으로 ‘울산항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며 그동안 울산의 산업화 과정만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비판한 바 있다(강영훈 외, 2009: 122~123).⁸⁾ 그러나 울산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다룬 최신 연구를 보면 울

8) 중세 이후 항만 인프라를 굳건하게 구축한 도시는 흥망성쇠 없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항은 한국의 중요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울산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울산에 국가산업단지만 소재하고, 자동차, 조선 및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3대 주력산업이 소재하게 된 기반에는 울산항의 암묵적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울산항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지역제조업에 편중된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보다는 항만의 가치와 함께 재검토하여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성 있음(강영훈 외, 2009: 123).

산은 여전히 공업도시로 규정되고 있으며,⁹⁾ 이러한 공업도시의 뿌리를 일본인 자본가와 식민지 구상의 결과로 탄생한 근대도시 울산에서 찾고 있다(조명기, 2019: 48). 이러한 공업도시 울산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가하기 위해 ‘고래’라는 자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기도 하였고(조명기, 2019: 88~95), ‘영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다(이민정, 2019).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김선미·송정숙(2020)의 논문에서는 울산항을 중심으로 울산의 로컬리티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데 필자가 보기에 부각되어야 하는 울산의 장소자산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자연환경과 지리적 입지로 인해 선사시대 이래로 울산지역에서 형성된 외부와의 강한 연결성이다. 즉, 선사시대 이래로 울산이라는 장소는 외부로부터 사람과 물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다. 그 이유에는 항구의 존재도 작용했지만, 그 항구를 무대로 이루어진 실천들과 그 실천들에 의해 규정된 선택의 경로들 역시 울산지역의 소위 ‘국제성’에 기여했다고 이해된다. 울산의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시대별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별 현상들을 중첩하여 살펴봄으로써 울산의 국제적 장소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을 필자의 몫으로 삼기로 했다. 즉, 본 장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울산에 거쳐 갔거나 울산에 정착한 이방인 타자들의 흔적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울산의 주요 장소자산으로 ‘국제성’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울산’이라는 장소의 공간적 범위와 역사적 깊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장소는 공단과 항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장소의 정체성 형성도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역사에 대한 공적 대변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울산박물관의

9) “공업도시 울산은 이 공간에서 영위되던 기존 7,000년 삶의 일상과 성격들을 삭제하고 텅 빈 공간을 생산하면서 탄생되었다. 그리고 텅 빈 공간의 생산을 통한 공업도시 울산의 탄생은 철저히 국가유기체론 아래에서 기획된 것이었다”(조명기, 2019: 42).

<그림 1> 울산의 ‘국제교류의 허브’ 장소성에 기여한 장소들의 위치



전시 구성이나 도록 내용을 보면 울산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이 어떠한 시공간적 범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울산박물관의 상설전시는 총 세 개의 전시실(역사실, 산업사1실, 산업사2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역사실에 대해 도록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역사관은 울산박물관에서 가장 중심되는 전시공간이다. 전시실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다루는 시기도 선사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아주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울산 역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울산박물관 2011: 22). 이를 보면 울산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이 선사시대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의 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울산은 …… 서

쪽으로 가지산·신불산 등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영남 알프스’가 자리하고 있고, 백운산 탐골샘과 가지산 쌀바위 등에서 발원한 태화강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경주 방면에서 내려온 동천은 태화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흐르고 있다”(울산박물관 2011: 10). 즉, 울산이라는 장소는 산업시설이 집중된 조선시대 ‘울산부(蔚山府)’ 구역과 산업시설과 무관한 내륙의 ‘언양현(彦陽縣)’ 구역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공간적 범위 속에서 특히 어떠한 경험들이 울산의 국제적 장소성을 만들어나갔는가?

울산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3만 5천 년 이전부터다. 이 무렵에 조성된 울산 삼남면 신화리 유적에서는 여러 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석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도구가 확인된 신화리 유적은 ‘석기 제작 공방’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곳에 특히 흑요석 석기가 출토된 점이 매우 중요하다(울산박물관, 2011: 26~27). 왜냐하면 흑요석은 화산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사용된 흑요석은 자체 조달된 것이 아니라 백두산 혹은 일본 남부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즉, 울산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흑요석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이 이미 구석기시대에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곳과도 연결된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신화리 출토 흑요석의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 규슈 지역에서 온 것임이 밝혀졌다(장용준·김종찬, 2019).¹⁰⁾

신석기시대에 들어와 울산은 흑요석을 매개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었는데, 이 사실 역시 흑요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울산과 일본 남부지역과의 연결망은 신석기시대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울산 산하동, 세죽리 등에서 일본 규슈산 흑요석 석기가 출토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울산박물관 2011: 34; 장용준·김종찬, 2019). 한편, 놀랍게도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는 북쪽의 백두산 흑

10) 구석기시대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기 때문에, 신화리 출토 흑요석이 규슈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해상교역의 결과로 볼 수만은 없다. 당시 두 지역은 육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석도 울산 지역으로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울산 처용리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 석촉의 원산지는 백두산인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다(장용준·김종찬, 2019). 여기에 더해 처용리에서 중국 동북지방 및 연해주 지역의 것과 매우 유사한 옥 귀걸이가 출토된 사실까지 고려하면(울산박물관 2011: 34), 신석기시대에는 울산이 바다 건너의 일본열도까지 포함하는 남쪽의 연결망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그 너머의 지역을 포함하는 북쪽의 연결망에서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일홍, 2021: 210).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울산이 이렇듯 머나먼 세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지되고 있던 사실이고, 한반도 내 백두산 흑요석의 유통망과 일본 규슈산 흑요석의 유통망이 울산에서 겹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동’, ‘외부로부터의 유입’, ‘외래 문물’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울산의 장소성을 규정하려는 노력도 최근에 있었다(고일홍, 2021: 219~220).

흑요석의 이동이 만들어낸 교역망을 통해 울산이라는 장소에 대한 정보는 멀리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이곳에 도달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 울산으로 외부에서 주민이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동북형석도’가 거론되곤 한다. 동북형석도는 교역품이 아닌 특정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는 도구로써, 주된 분포지는 연해주와 두만강 유역이지만 남한 지역에서는 포항·경주의 형산강 유역과 더불어 울산의 태화강 유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裴眞晟, 2007; 2010). 다양한 고고학적 정황을 근거로 동북형석도를 사용했던 이주민은 기존의 상호작용망을 통해 확보된 선지식을 바탕으로 울산에서의 정착을 선택하고 재지 사회 속에서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일홍·한지선·최영은, 2021: 114).

울산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끌어당기는 요인’은 이곳의 경제적 기반 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울산 북구 달천동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영남 지역 최대의 철 생산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철 소재는 사로국의 중심지인 경주 지역까지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철 생산기술은 고대사회의 최첨단 기술로 원료만 분포한다고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철 생산의 복잡한 공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데,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외부 지역에서 입수한 완제품 철기만 사용하다가 기원전 2세기 후반에 갑자기 완비된 체계의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철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착 지배세력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유입시켰을 가능성과 아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온 지배세력이 울산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둘 다 거론되는데(김도현, 2007: 43), 중요한 것은 울산에 철기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주민의 유입 덕분이라는 사실이다. 외래유물은 교역품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발견이 반드시 이주민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이동 없이 물품만 왔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낙랑계 토기와 일본열도의 야요이 토기가 달천 유적에서 발견된 사실은(울산박물관, 2011: 56) 당시 철 생산 중심지였던 울산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든 외부로부터 많은 이들이 옮겨 와서 거주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달천철장을 보유하고 철을 생산하며 철에 대한 유통권도 확보하고 있던 울산지역은 주변 지역을 통합하며 고대국가로 성장해 나가던 사로국(신라)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던 지역이었다(한미애, 2015: 84). 신라인들의 울산을 향한 관심과 방문의 흔적은 돌에 새겨져 있다. 울산의 암각화라 하면 흔히 반구대의 고래 그림을 떠올리겠지만, 이웃하는 천전리에서도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천전리 암각화를 보면 흥미롭게도 선사시대에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 이외에도 후대에 신라인들이 새겼던 이미지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중에는 말을 이끄는 인물상, 말을 타고 있는 인물상, 돛 단 배, 말이 포함된 행렬 등 ‘이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인다. 기록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있었던 신라 왕족의 행차내용¹¹⁾과 이곳을 방문했던 신라 귀족, 승려, 화랑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또한 삼국통일이

11) 525년(법흥왕 12년) 사부지 갈문왕 일행이 천전리 각석을 다녀갔고, 14년이 지난 뒤 그의 부인과 아들 심맥부지(진흥왕)가 이 골짜기에 왔다는 내용이다(울산박물관, 2011: 92).

후에 이곳을 방문했던 이들은 앞서 남겨진 기록들을 본떠 자신들의 이름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천전리 각석의 명문은 천 년 이상의 기록을 간직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강종홍, 2014: 42). 즉, 천전리는 신라 중앙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던 ‘핫 플레이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울산만은 신라의 항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경주에서 울산만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평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했고, 울산만이 파도가 약하고 수심이 깊어 큰 배가 드나들기 좋았기 때문이다(울산박물관, 2020: 13). 당시 사용되었던 울산의 항구에 대한 정보는 우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울포(栗浦), 사포(絲浦), 개운포(開雲浦)와 관련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늘날 울산광역시 북구·동구 일대로 비정된 울포는 418년에 박제상이 눌지왕 동생 미사흔을 일본(왜국)에서 구출하기 출항했던 항구로 기록되어 있다. 사포는 569년에 인도에서 온 황철과 황금을 실은 큰 배가 도착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운포는 동해용과 그의 아들인 처용이 헌강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울산박물관, 2020: 16~23). 이중 사포는 7세기부터 물류량이 많은 물적교류의 거점 항구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선석렬, 2020: 38) 많은 연구자들은 그곳의 위치 비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1991년과 2006~2008년의 발굴을 통해 울산 반구동 303번지 일원에서 최고급 중국산 도자기와 삼국시대~남북국시대의 다양한 건축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어 반구동 유적이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신라의 국제무역항 사포인 것으로 대체로 이해되고 있다.

울산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던 항구는 적대적 타자가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울산은 경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삼국시대 이래로 일본열도의 왜구가 드나드는 창구가 되었다(선석렬, 2020: 37). 이러한 관문을 방어하기 위해 8세기에는 오늘날의 경주와 울산의 경계가 되는 지점을 따라 길이 12km의 관문성을 축조하고, 관문성의 동쪽 끝에는 신대리성을 축조하였다. 또한 11세기에 동여진 해적의 침입 범위가 경주 지방까지 확대되자 울주를 비롯한 전술적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방어망을 구축

했다고 한다(신성재, 2021: 244). 한편, 고려말에 왜구의 침탈이 심해지자 성의 축조가 또 다시 시작되었는데, 언양읍성이 바로 이 무렵(공민왕 2년)에 초축되었다고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록되어 있고(울산박물관, 2016: 12), 우왕 11년에는 울산읍성이 축조되었다(울산박물관, 2016: 144).

이러한 적대적인 타자의 활동으로 울산지역 주민들의 삶은 고달팠을 것이다. 일례로 『고려사절요』 공민왕 기사를 보면 “왜구가 동래와 울주를 불태우고 조운선을 탈취했다”¹²⁾라고 나와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기사에는 “왜구의 괴수 상전·어중 등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울주포로 들어온 것을 지주사 이은(李殷)이 식량을 주고 후히 접대하였더니, 상전 등은 도리어 꺾어서 함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은 …… 등을 잡아 가지고 도망해 돌아갔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왜구의 도발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인상적이다. 울산항의 방어를 굳건히 하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한편, 조선 내 거주하는 항거 왜인을 포섭하고, 일본사신을 위한 포소왜관(浦所倭館)이 설치하기도 했다(한문종, 2012: 250). 울산에 세워진 염포(鹽浦) 왜관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보면 무역도 허가해주고(세종 8년), 일본어 공부 진흥책에 대해서도 논하고(세종 12년), 염포에 상주하는 굶주리는 왜인에게는 환자양곡을 주도록 했음(세종 16년)이 확인된다(김선미·송정숙, 2020: 12). 그러나 연산군대부터 염포에서의 병폐가 만연해졌고, 중종대에 접어들어서는 삼포왜란이 발생하여 염포에 정박했던 선박들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김선미·송정숙, 2020: 15). 이에 염포는 소위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200여 년 동안의 일어났던 타자의 실천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12) 『고려사절요』 권2 공민왕2, 공민왕 10년 8월 기사(1361),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j&bookId=%EA%B6%8C2&types=r#detail/kj_027r_0010_0040_0070_0020(검색일: 2022년 5월 17일).

13)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1월 3일 2번째 기사(1397), https://sillok.history.go.kr/id/kaa_10601003_002(검색일: 2022년 5월 16일).

든 울산지역에 그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조선은 적대적 타자를 대상으로 귀화정책을 펼쳤는데, 조선 정부는 귀화한 왜인과 야인을 두고 ‘향화(尙化)’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했다(이옥빈, 2015: 120). 그런데 사실 한반도는 이보다 더 오래된 귀화 장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려전기에는 발해의 멸망, 거란의 성쇠, 여진의 발흥, 금의 건국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려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옥걸, 1996: 58~60). 또한 울산의 개운포에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는 처용은 흔히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귀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귀화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현지인들과 융화하거나 혹은 융화하지 못했는가? 이 주제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로 거론되는 것이 1609년도의 울산호적부이다.

조선시대에는 “귀화한 호인(胡人)들이 해서로부터 경기, 호남, 호서의 해변 열읍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다”¹⁴⁾라고 기록될 정도로 조선 전역에 상당수의 향화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1609년의 울산호적에 의하면 이 중 20개 가구 총 33인의 향화인은 울산지역에 터를 잡았다. 이들은 여진 부족 간의 전쟁 등으로 한반도 북변에서 발생한 혼란을 피해 귀화한 ‘북방계’ 향화인이었음은 본관이 대원(大元), 흑룡강 등으로 기록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가계를 추적함으로써 현지인들과 융화한 정도에 대한 유추가 가능했는데, 우선 동면 농소리 향화인 대부분은 향화인끼리의 폐쇄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선인 마을의 중심부와 떨어진 자신들만의 구역을 형성하며 살았다고 한다. 반면 동면 유등포리 및 남면 온양리의 향화인은 농소리의 향화인에 비해서는 조선인과의 혼인비율도 높았고, 또한 조선인에 이웃하여 살았음을 알 수 있다(이옥빈, 2015: 119).

이러한 향화인 중에는 상당한 경제력을 키워나간 이들도 있었음은 아주 희귀하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향화인 관련 고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7세기 중

14) 『광해군일기(중초본)』 15권, 광해 1년 4월 10일 신유 4번째 기사(1609), https://sillok.history.go.kr/id/koa_10104010_004(검색일: 2022년 5월 17일).

반의 한 토지매매문서에 따르면 향화인 오선립(吳先立)은 논 두 군데를 목면 다섯 동(同)(즉, 목면 250필)을 받고 처분하였다. 당시의 목면 가격으로 추산해 보면 오선립이 논을 팔고 대략 870여 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임학성, 2008: 120~121).

지면의 한계와 본 학술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울산지역을 거쳐 갔거나 그곳에 정착한 타자에 대한 검토는 이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하지만 수박 곶핥기식으로 살펴본 상기의 내용만으로도 천혜의 항구를 보유한 자연조건과 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연해주 지역으로 연결되고, 남으로는 일본열도로 연결되고, 내륙으로는 경주와 연결된 지리적 입지로 인해 울산지역이 선사시대 이래로 외부 세상과 강하게 연결된 소위 ‘국제적’ 장소였음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울산의 장소성이 오늘까지도 이 지역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가?

1943년 울산공업도시 개발계획을 주도했던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가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1,000년에 걸쳐 100만 인구나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신라 왕경 경주의 외항으로 번창함이 극에 달했던 울산항은 그 후 신라의 몰락과 함께 오랜 기간 동면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울산박물관, 2020: 13), 자연환경과 지리적 입지에서 비롯된 울산의 장소적 특징이 역사를 관통하며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이 장소의 산업기반 조성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층층이 중첩된 타자들의 방문과 정착의 경험이 오늘날 울산에서 타자의 혹은 타자를 향한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포착된다. 우선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울산광역시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3%로, 대구광역시(2.2%)보다는 높고, 경상북도(3.9%)와 경상남도(4.0%)보다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0: 4). 이 데이터를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하면, 영남지역의 외국인주민 수 1만명 이상 거주 시·군·구 중에서 김

해(5.8%) 다음으로 울주군(5.6%)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제시(5.2%), 달성군(4.2%), 양산시(3.4%) 등을 상회하는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20: 8~13).

그렇다면 이러한 울주군의 외국인주민은 현지인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가? 앞서 살펴본 울산호적의 동연 농소리 향화인들처럼 현지인과 거주 구역을 달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면 유등리 및 남면 온양리의 향화인들처럼 현지인들과 어우러져서 사는가? 2014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2015년도에 발표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 양상을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 중 ‘거주지 분리 균일성’에서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울주군이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0.440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흥미롭게도 이는 영남지역의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중에서는 4번째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박윤환·임현철, 2015: 137). 또한 ‘거주지 분리 집중성’에서는 울주군이 전국에서 11번째로 높은 0.368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영남지역의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5번째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박윤환·임현철, 2015: 140).

왜 영남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 양상이 유독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거주지 분리 양상이 높은 영남지역에서 울주군의 분리 양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또한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문제겠지만, 외국인 주민이 현지인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분위기의 구성에 지자체도 기여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일례로 울산의 국제성과 관련해서 시의 지원을 받는 울산박물관 등을 통해 현지인과 이주민의 공존이라는 메시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울산박물관은 상설전시 개관도록을 통해 선사시대 일본열도와와의 교류 사실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¹⁵⁾ 또한 ‘박물관대학’을 통해서도 한일교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데, 일례로 ‘20기 울산박물관 대학’(2021년)의 기획을 보면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일까? 한일

관계사 새롭게 엿보기”라는 큰 주제로 “고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해”와 같은 강연이 제공되었다.¹⁶⁾ 아울러 울산의 지역 언론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선사시대 울산의 광역의 연결성을 전파하였다. 가령 경상일보 2016년 6월 15일 기사를 보면,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사용된 개운포성(開雲浦城)의 의의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세죽리 유적의 흑요석 석기나 처용리 유적 출토 옥기를 언급하며 선사시대의 맥락 속에서 개운포의 국제적 장소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일반인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선사시대 관련 내용이 이 정도이니 ‘처용문화제’의 주인공인 이방인 처용, 울산의 해문인 반구동 유적, 조선시대 엽포 왜관 등에 대한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언론의 칼럼과 특집, 그리고 대학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강연 등이 얼마나 활발히 제공되는지는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울산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대외 교류나 이방인의 이주 및 정착의 사건들을 선사시대부터 한 장면씩 쌓아 올리면 이곳의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장소적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장소성은 환동해 담론에서 울산이 우위를 점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장소성이 단편적으로나마 울산의 박물관이나 지역 언론을 통

15) 예를 들어, “이 흑요석은 일본 규슈(九州)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의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울산박물관, 2011: 30).

16) “제20기 울산박물관 대학 9월 7일 개강”(강현주), 《울산신문》, 2021년 8월 16일 자,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3165>(검색일: 2022년 5월 19일).

17) “황성동 세죽 유적에서 발견된 흑요석 화살촉은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 사세보(佐世保) 지역의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따라서 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개운포는 신석기시대부터 바다 건너 타 지역과 교류 및 교역이 이뤄졌고, 울산 해양문화의 중요 창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러 학자들이 이처럼 특이한 옥 귀걸이의 전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연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와 북방 및 일본 상호간에 바다를 통해 신석기인들이 교류를 했다는 것이며, 그중 개운포가 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성광도시 울산을 말하다)흑요석 화살촉·옥 귀걸이 등 미류 신석기시대부터 해양교류 추정”(박철중), 《경상일보》, 2016년 6월 15일 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568>(검색일: 2022년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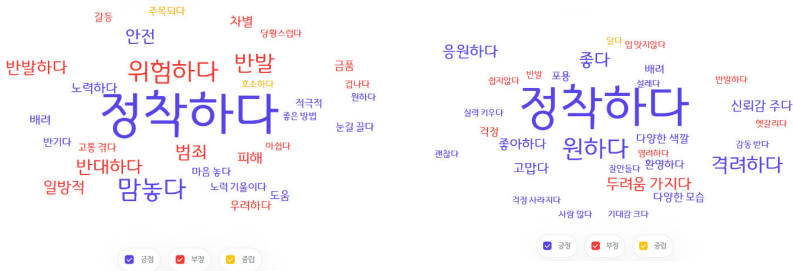
해 울산의 주민들과 공유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만큼, 오늘날 울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실천이나 경험에도 영향을 끼친 바가 있는지 향후 살펴볼 여지가 있다. 물론 설령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울산의 국제적 장소성과 울산지역 외국인주민의 경험 사이에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장소성에 주목한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상에 대한 ‘설명적 도구’로 역할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 구상 및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찰 및 결론

역사학이란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재를 설명·진단·반성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이다. 이는 역사학에 관한 매우 상투적인 정의이기도 하나, 현대 사회 내 역사학의 부정할 수 없는 소명을 나타내는 정의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실시한 제주도로 이주해 온 타자들의 교육 실천의 유산, 그리고 그들의 타자적 경험에 대한 역사적 조망이나, 울산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타자와의 직·간접적 조우에 대한 역사적 추적 역시 지금보다 더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관찰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까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상기 사례들의 유용성을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에서 찾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역사학의 역할인 것이, 미래는 ‘경쟁의 장(contested arena)’으로, 그 방향이 제시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약 20년이 되는 오늘날,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도민과 상생하는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교육이주로 대정에 장소자산을 만들어낸 조선시대 유인교육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울산에 초점을 맞추게 된 출발점은 환동해 담론에서 울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장소성의 제안에 있었

<그림 2> ‘아프간’과 ‘울산’ 키워드가 등장하는 SNS 내용의 긍정/부정 여부 분석 결과



출처: 셉트렌드 분석센터 ‘금부정’ 분석 기능(<https://some.co.kr/analysis/social/reputation>)을 활용한 분석 데이터. 왼쪽 분석 대상 기간: 2022.2.15~2022.3.15; 오른쪽 분석 대상 기간: 2022.4.23~2022.5.23.

으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울산의 이러한 ‘국제적’ 장소성은 앞으로 더 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2022년도 초 울산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1명 중 약 40%에 달하는 158명의 정착지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정착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응하여 울산의 한 지역언론에서는 “처용 정신으로 아프간인들 맞을 순 없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천 년 전 긴 항해 끝에 울산에 도착해 신라 49대 헌강왕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는 처용설화는 지금도 황성동 앞바다 처용암에 आरो새겨져 있다. …… [아프간 기여자들을] 천 년 전 이 땅에 와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전해준 ‘처용의 후예’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밀려든다”와 같이 호소하기도 하였다.¹⁸⁾ 필자가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기여자에 대한 SNS 여론을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에 비해 5월에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참고). 상기와 같은 사설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역 언론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울산을 배경

18) “처용 정신으로 아프간인들 맞을 순 없었나”, 《울산신문》, 2022년 3월 21일 자,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5052>(검색일: 2022년 5월 17일).

으로 일어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고, 본고에서 제시한 울산의 국제적 장소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그러한 상호작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⁹⁾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추구한 지식 생산의 방향에 대해 잠시 언급하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테제 중 하나는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기보다는, 이미 생산된 정보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데이터(data)의 제시나 그 데이터의 가공을 통한 새로운 정보(information)의 제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각종 논문, 저서, 보고서, 도록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사이의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연결성을 제시함으로써 ‘장소성’, ‘타자’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knowledge)을 창출해 냈다.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지리학 분야와 역사학 분야의 정보 간의 연결성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울산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다양한 시대의 데이터와 정보 간의 연결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로컬한 것이 글로벌 한 것이기도 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일찍이 도린 매시는 ‘로컬을 만들어낸 글로벌 과정들의 역사(the history of the global construction of the local)’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지리학의 장소 개념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Massey 1995). 따라서 본고의 시도는 비록 역사학의 관점에서 출발했지만 지리학의 고민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다만 울산의 국제적 장소성 구축을 위해 역사적 경험들이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타자화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김해시에서 과거의 타자였던 가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소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다양성이 관과되고 새로운 타자가 만들어진 사례를 들 수 있다(김지현 외, 2021).

원고접수일: 2022.05.23.

심사완료일: 2022.06.22.

게재확정일: 2022.06.25.

최종원고접수일: 2022.06.28.

Abstract

**The Need for Placeness Studies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Attempts to Provide ‘The Other’ with Historicity**

Ilhong Ko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adopt a historical point of view in studies on place and placeness. In particular, the need to trace the historicity of place asse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temporal frame and by reconciling the historicity of ‘The Other’ was maintained, and related case studies were presented. In the first case study, by comparing the past and present of the ‘educational migration’ phenomenon at Daejeong, in Jeju Island, the necessity of tracing the historicity of place assets and the need to imbu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of a specific place with historicity was presented. In the second case study, by tracing the events of foreign exchange and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foreigners in the Ulsan region, spanning from prehistoric times to the present, it was proposed that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this place could be defined as ‘the hub of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this, the author argues that adopting the lens of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study of placeness could be intensified and new types of placeness could be discovered. However, in this paper, rather than using a historical sense of ‘placeness’ as a tool to explain present-day phenomena, it was regarded as a resource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uture visions.

Keywords: Placeness, place assists, historicity, The Other, foreigners, Jeju Island (Daejeong), Ulsan

참고문헌

- 강다희·고민경. 2021. 「교육이주 모빌리티로 형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장소성」. 《공간과 사회》, 31권 4호, 52~91쪽.
- 강영훈·김문연·문장식·환진호·강달원·김빛나라. 2009. 『환동해경제권과 울산의 발전전략』. 울산발전연구원 기획연구 보고서.
- 강중훈. 2014. 「울주 천전리 각석 명문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 《한국암각화연구》, 18호, 27~46쪽.
- 고일홍. 2021. 「환동해 오이쿠메네 재검토: 한반도 권역을 중심으로」. 『동해를 둘러싼 교류와 갈등: 선사에서 중세까지(제2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21사업단 국제학술대회)』, 206~222쪽.
- 고일홍·한지선·최영은. 2021. 「선사 및 고대 울릉도의 역사지리적 위치 검토: 환동해 교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1호, 107~145쪽.
- 권영상·경보영. 2021. 『한반도 신경제도 구상 기반 거점도시 성장 잠재성 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사업결과보고서.
- 김도현. 2007. 「울산의 고대제철 기술 검토」. 『울산학연구 제2호』, 11~52쪽.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 김선미·송정숙. 2020. 「기록으로 본 조선시대 울산의 로컬리티: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권 1호, 1~25쪽.
- 김지현·김그린·정현주. 2021. 「김해시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고찰 - 구별 짓기에서 마주침의 공간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5집, 119~160쪽.
- 김호. 2020a. 「조선시대 제주의 주변성과 의료」. 《한국학연구》, 59집, 451~483쪽.
- 김호. 2020b. 『정조(正祖)의 제주통치론(제주학연구 71)』. 제주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박리미. 2020. 『“깊은 역사(Deep History)”와 선사시대의 역사화』. 한국고원대학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배균·이승욱·조성찬(편). 2017. 『특구: 국가의 영토서요가 동아시아의 예외공간』. 서울: 알트.
- 박옥걸. 1996.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박윤환·임현철. 2015.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공간적 패턴」. 《입법과 정책》, 7권 2호, 125~148쪽.
- 裴眞晟. 2007. 「東北型石刀에 대한 小考: 東海文化圈의 設定을 檢하여」. 《嶺南考古學報》, 40권, 5~25쪽.
- 裴眞晟. 2010. 「靑銅器時代의 蔚山와 豆滿江流域」. 『청동기 시대 울산 태화강문화』, 87~99쪽. 울산: 울산문화재연구원.
- 배한국. 2011. 「빅 히스토리(Big History)의 이론과 문제점」. 《역사교육논집》, 46권, 409~444쪽.
- 백선혜.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 서울대학교 국토문화연구소.
- 선석열. 2020. 「신라해양사에 있어서 울산의 중요성」. 『신라의 海門(해문), 울산 반구동』 36~41

쪽. 울산: 울산박물관.

- 신성재. 2021. 「11세기 동계지역 해상방위와 도부서(都部署): 진명·원흥 도부서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34호, 231~269쪽.
- 신혜란·권민지. 2020. 「제주 지역성 연구: 별도공간 개념의 적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권 2호, 140~158쪽.
- 양진건. 2021. 「流人教育의 意味에 대한 教育史的 考察.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3권 2호, 159~181쪽.
- 울산박물관. 2011. 『울산박물관(개관기념도록)』. 울산: 울산박물관.
- 울산박물관. 2016. 『역사의 길목을 지키다: 울산(울산)의 성곽(성곽)』. 울산: 울산박물관.
- 울산박물관. 2020. 『신라의 海門(해문), 울산 반구동』. 울산: 울산박물관.
- 이민정. 2019. 「영화산업 불모지 울산, 그리고 국제영화제 개최지로서 울산의 장소성. 『아시아 문화콘텐츠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TinC 컨퍼런스』, 64~75쪽. 서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 이옥빈. 2015.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원거주지와 이주시기: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호, 119~156쪽.
- 이일형. 1994. 「건축에서 장소의 이론과 구성체계 요소의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권, 78~84쪽.
- 이석환·황기원.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권 5호, 169~184쪽.
- 이승욱·조성찬·박배균. 2017. 「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권 2호, 269~287쪽.
- 임학성. 2008.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の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蔚山戶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古文書研究》, 33호, 95~128쪽.
- 장용준·김종찬. 2019.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흑요석 원산지 연구. 《韓國考古學報》, 111권, 8~45쪽.
- 정선영. 2007.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기. 2019. 「울산의 도시 정체성 재구성 양상과 과제: 문화생산물·문화경관을 중심으로. 『울산학연구』, 41~97쪽.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 최지영·조경진. 2022. 「서울 송현동 일대의 문화 헤게모니와 장소성 변화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50권 1호, 33~52쪽.
- 한문중. 2012. 「조선전기 왜관의 설치와 기능. 《인문과학연구》, 32호, 249~273쪽.
- 한미애. 2015. 「고대 울산 중산동세력 연구. 《울산사학》, 19권, 69~96쪽.
- 한정훈. 2017. 「광주 주변부 공간의 변화와 이주민의 장소성 연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74집(21권 1호), 51~84쪽.
- 행정안전부. 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 기준)』.

- 허대옥. 2004.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박준서·임승빈. 2011. 「환경계획 설계를 위한 장소성 개념 연구: ‘Sense of Place’와 ‘Placeness’ 용어 비교 분석」. 《한국경관학회지》, 3권 1호, 14~29쪽.
- Committee on Identifying Data Needs for Place-Based Decision Making (CIDNPBDM),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02. *Community and Quality of Life: Data Needs for Informed Decision Making*.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Hanson, S. 1999. “Isms and schisms: Healing the rift between the nature-society and space-society traditions in human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No.89, pp.133~143.
- Massey, D. 1995. “Places and their Pasts”. *History Workshop Journal*, No.39, pp.182~192.
-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7. *Rediscovering Geography: New Relevance for Science and Societ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Ong, A.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 Rodriguez, J. E. 2022. “Deep History and the Pitfalls of Periodization.” *Interventions*, Vol.24, No.2, pp.161~180.
- Shryock, A. & D. L. Smail. 2011. *Deep History: The Architecture of Past and Present*. California,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ail, D. 2005. “In the Grip of Sacred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10, No.5, pp.1137~1361.
- Smail, D. 2008. *On Deep History and the Brai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ele, F. 1981.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lishing.
- Tuan, T. F. 1977. *Space and Plac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lace.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seogwipo.grandculture.net>.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sillok.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절요 홈페이지. <https://db.history.go.kr>.